

제23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3. 11. 16.(서면심의)

☐ 안건명 : 공동주택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위 안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면접평가 대상 확대의 결과가 품질 및 안전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접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등을 검토할 것
- 가점 평가항목 추가 신설에 대한 명확한 관련근거 등을 재검토하여 제시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공동주택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분 야	검 토 의 건	비 고
면접평가 대상자 확대	1. 면접대상자 확대를 통해서 안전 및 품질관리 향상에 일부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짧은 면담 시간을 통해 우수 기술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면접대상자를 확대는 가능하나 기술인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에 따라 면접방식(질의 등)다양화를 통해 우수 인력 검증이 될 수 있는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청년기술인 배치 가점	1. 우수 기술인을 육성하고 주택건설품질 제고를 위해서 청년기술인 배치 인원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가점 부여를 통한 청년기술인 유입을 확대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3인 이상 배치 시 0.2점을 가점한다면 변별력이 크지 않아 기업에서 고용확대에 대한 노력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2) 청년기술인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를 하였으나, 청년기술인을 확대한다면 30세 이하(첫 고용 시 혜택방안 등)의 청년층 채용 시 가점 확대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3)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통한 의견 반영 필요. 2. 청년기술인 및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가점확대에 대한 노력보다는 청년기술인이 취업 후 기업에 장기근속 여부에 대한 것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타	1. 평가 기록방식 일원화를 위해서는 녹화과정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필요 시 녹화과장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조건부 채택

2023년 10월 25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공동주택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분 야	검 토 의 건	비 고
면접평가 대상자 확대	○ 면접평가 대상 확대의 결과가 품질/안전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부족함. 실제 시행될 경우 면접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의 증가에 비해, 질의답변의 내용은 평준화된 정성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니 적정인원 등을 검토해서 시행 바람	
청년기술인 배치 가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발주청이 평가항목 등을 보완할 수 있으나, '청년기술인 배치'를 가점항목인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의 보완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본 가점항목의 취지는 건설기술인의 신규고용을 장려하는데 있고,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청년기술인'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건설인(배치)이라 볼 수 없음 ○ 또한 정부의 연령차별금지정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책무'에도 위배됨	
기타	○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을 사진촬영 및 녹음 방식에서 녹화방식으로 기록하고 요청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 면접평가 대상자 확대 및 청년기술인 배치 가점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31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공동주택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면접평가 대상자 확대	<p>(1) 평가 배점변동 없이 면접 인원을 확대하는 것인 바, 주된 용역 참여 기술자를 면밀하게 평가하게 됨으로써 건설사업기술인의 사업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고 아울러 안전,품질 향상에 도움이 됨.</p> <p>(2) '면접평가대상자 확대'는 적정함</p>	
청년기술인 배치 가점	<p>(1)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는 신규 기술인력 보유에 노력하고 있으나 청년기술인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기피하는 사회현상과 입사 후에도 퇴직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청년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청년이 건설엔지니어를 선호·입직하는 근본대책 수립 및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상호 인정 등의 제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p> <p>(2) 따라서, 청년기술인 배치 가점 반영 취지는 필요하나 "평가항목 신설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국토부 질의회신과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평가항목 '신설 적용'은 부적정함</p> <p>* 건설기술진흥법설계관련Q/A(국토부 건설기준과 : '21.3.21.)</p>	
기타		
종합의견	<p>조건부채택</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10월 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공동주택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면접평가 대상자 확대	<p><조건부 채택></p> <p>1. 용역 착수시점 배치 상주기술인 전원을 면접평가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대상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자가 개인사정 또는 회사사정으로 사업착수 후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감안할 때 대상자 확대에 우수한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총 면접평가자수를 3명 정도로 제한하고 사업별로 면접대상자를 별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p> <p>2. 참고적으로 배치 상주기술인 전원을 면접평가하는 것은 면접평가 대상자 총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어, 업체에서는 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당한 인력을 예비로 상시 보유 및 운용해야 함에 따라 인력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p> <p>3.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p>	
청년기술 인 배치 가점	<p><재심></p> <p>청년기술인 배치에 대한 가점 신설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 ‘가점 추가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지양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p> <p>아울러 市 청년 기본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청년기술인 배치에 대한 가점은 입찰참여 업체로 하여금 무대가(無代價) 추가 배치를 강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p> <p>PQ평가 시에는 청년기술인 특정인을 지정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배치하겠다는 계획만으로 평가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청년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분야에 유입되지 않는 원인(추정)</p> <p>1. 기술적인 지식만으로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한계</p> <p style="margin-left: 20px;">->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 외에 발주청,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율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능력이 실무경험을 통해 기본적으로 겸비되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영역임</p> <p>2. 연고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근무 불가피</p> <p style="margin-left: 20px;">-> 건설사업관리업무 여건상 현재의 거주지를 벗어난 타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불편상존</p> </div>	

	<p>-> 결혼을 하더라도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가족 모두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등 주거생활 불안정(결혼 기피 요인)</p> <p>3. 직업에 대한 비전 불확실</p> <p>-> 건설사, IT 등 타업종에 비해 건설사업관리분야는 초임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임금인상도 매우 보수적이고 장기간 근무하더라도 획기적인 임금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확실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분야에 대한 지원 기피</p>	
기타	<p>1. 기록관리 일원화(SOQ → PQ 및 SOQ) : 원안채택</p> <p>2. 기록관리 구체화(사진촬영 및 녹음 → 녹화) : 원안채택</p> <p>※ 참고의견</p> <p>: 최근 일부 발주청(LH,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녹화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음.</p>	
종합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채택</p> <p>※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p>	

2023년 11월 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공동주택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면접평가 대상자 확대	1. 면접대상 인원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ex. 입찰공고시 면접인원 제시 등)하도록 세부평가기준에 명시할 것	
청년기술인 배치 가점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판례집(’21.12.)’에 의하면, 가점 평가항목의 추가 신설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관련근거 등을 재검토하여 제시할 것	
기타	3. 녹화기록을 하는 평가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ex. 평가위원회 평가과정 녹화 등) 4. 평가과정 녹화를 위한 사전 동의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23년 10월 인

심의위원 :